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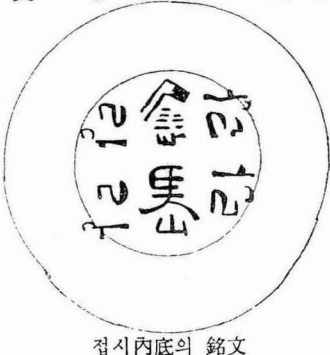
花文접시 한 點을 볼 수 있는 機會가 있어 여기 紹介하여 先輩諸賢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접시의 形態는 瓦甎前이런 種類의 一般形과 같이 굽이 작고 內面바닥은 편편하고 넓은 전이 비스듬히 올라가다가 口緣에서 若干 外反되었다.

밀의 넓은 中心 文樣帶엔 連圈文帶를 內底에는 銘文帶를 두었다. 印花로 된 이들 文樣은 모두 白土嵌入으로 全面이 文樣으로 概括되었다. 外面은 疏略하게 取扱되어 口緣部 약간 밀에 數條의 線을 두루고 그 밀의 넓은 中心 文樣帶엔 繩蓆文帶가 있고 이 中心 文樣帶 밑은 굽까지 素文이다. 印花로 된 이 文樣들은 內面과 달리 白土를 嵌入하지 아니하고 印花로 文樣을 나타낸 위에 귀얄로 白土를 입힌채로 정리하지 아니하였다. 即 印花文을 成立시키는 過程에서 印花한 위에 白土를 바로고 印花된 外에 묻은 白土는 굽어내어 印花된 部分에만 白土가 남는 것인데 여기서는 白土를 굽어내지를 아니하였다. 後面 文樣의 布置를 疏略히 다루는 것은 우리 美術史에서 흔히 보는 바이나 印花된 文樣 위에 白土를 바로고 그대로 두는 手法는 鷄籠山系統 ①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銘文은 內底 中央에 있으며 圖面에서 보는 바와 같이 文樣으로서의 効果를 나타내어 圓圈內에는 異形文字(?)로서 가득 채워 있다. 粉靑沙器

어서는 口緣部에 唐草文帶를 그리고 그

(대접·접시)에서의 內底의 文字는 官廳銘이나 播造地名을 넣은 것이 通例인데 이 文字는 全然 異形으로 前例에 比定할 수가 없다. 다만 中心의 漢字 式表記周圍에 있는 한글체의 글씨(?)는 흡사「랑」字 같으나 이것이 반드시 「랑」字이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길이 없다.



접시內底의 銘文

이 접시의 製造年代는 접시內의 文樣構圖②로 보아 粉靑沙器 盛期의 모습을 보여 주나 外部의 文樣處理手法이나 굽의 整理, 胎土의 質 등으로 보아 十五世紀末以後의 作品으로 생각된다③.

胎土는 低質로 赤褐色으로 가볍고 얇게 整理되었으며 釉藥은 灰靑의 粉靑沙器釉藥이 얇게 施釉되었음. 口徑一五·一—一五·三cm 底徑四·九—五·〇cm 高一·九—三·六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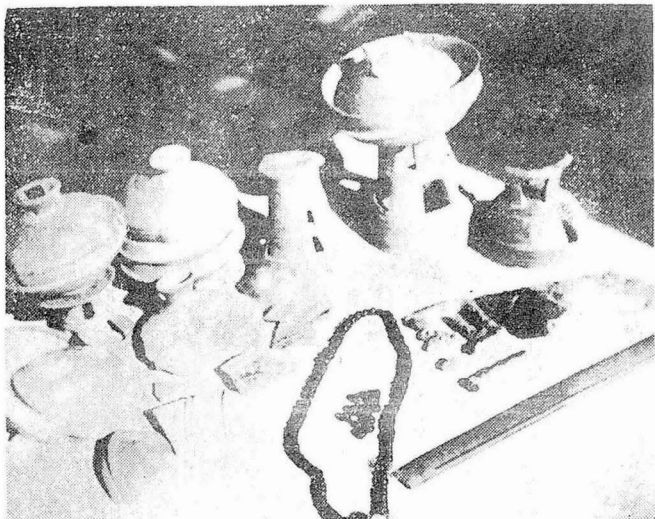
註

- ① 一九二七年度 古蹟調査報告 第一冊 鷄籠山麓陶窯址調査 圖版十四의(1) 一十五의(2)·(3)·(5)·二九、三〇의(4)等
- ② 拙稿·粉靑沙器印花文대접試考 歷史學報 二七輯 一九六五年
- ③ 拙稿·宣德十年銘 粉靑沙器墓誌(美術資料 一九六三年 六月 國立博物館)에서 鷄籠山窯址에서 出土된 墓誌의 年代를 十五世紀末以後로 推定한 바 本稿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이 접시의 外部手法는 鷄籠山系와 같고 胎土와 굽의 정리도 이와 類似한。

密陽 佳山池畔 出土 遺物

李 雲 成

지난 八月十二日 密陽郡府北面 月山里에 있는 佳山池 동편 가장자리 못바닥에서 偶然히 露出되어 收拾된 바 있는 出土 遺物 十餘點에 對하



여 그 調査經緯를 略記하고 遺物에 對한 內容을 報告하고자 한다.

出土經緯를 보면 月山里 居住 李啓海 (密陽中學一年)君等 數名이 夏季休暇中 과제인 土器破片을 蒐集하기 위하여 平素에 注意겨 둔 前記 地點을 踏査하던 中 偶然히 表土面에 土

埋藏되어 有.므로 隣近에서 甕이와 삼을 求해다가 知覺없이 함부로 深部를 과해쳐 古墳支室에 使用되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塊石을 形편없이 散亂시켜 積石의 狀態가 石列을 도무지 짐작할 수 없게 하였을 뿐 아니라 出土遺物의 配置狀況의 把握이 困難함은 勿論 出土된 一括遺物 가운데 鐵製刀子等 一部 遺物은 破損하여 못물속에 침어던져버렸다 하니 매우 哀惜한 노릇이다. 그러나 散亂한 대로 出土現場의 狀況과 發掘에 參加하여 遺物의 埋藏狀態를 目擊하였다는 學生들의 證言을 土臺로 이를 간추려 본다.

(1) 本是 이 地帶는 周圍 四km나 되는 넓은 佳山池의 東南方防築을 이루고 있는 標高 八〇m 程度의 丘陵地帶로서 櫛文과 無文土器, 大形의 瓦片, 土器等이 出土된 前例가 많고 日帝中葉이 貯水池 工事

時에는 現場에서 土器·鐵器等 多量의 出土品이 나와 日人이 搬出해 갔다는 洞民들의 傳言과 아울러 이 處의 周邊에서 土器의 破片이 數없이 散見되는 것으로 보아 古代遺蹟地임을 確信케 하고 있으며, (2) 出土地點과 가장 가까운 (約 3m 程度) 丘陵의 斷層을 살펴 본 결과 遺物이 露出된 地面上에는 約 2m 以上の 表土層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고 散亂한 塊石의 自然狀態를 注意하여 東西로 長軸을 한 비교적 넓은 積石支室의 古墳構造를 連想할 수 있다. 地面에서 約 30cm 깊이의 흙바닥에서 土器·鐵製利器·유리製小玉의 頸飾等 遺物이 出土된 外에 櫛의 遺構나 板石, 遺骸의 痕跡이 一切 없었다는 學生들의 證言을 參酌하면서 出土即後 여러 사람이 分配하여 흠어졌던 遺物을 일일이 찾아가서 確證하고 收拾한 것을 檢討하여 그 內容을 다시 밝힌다.

① 유리製小玉頸飾 一連

出土 當時 積石內域의 반듯한 흙바닥에 목걸이 本然의 狀態대로 잘려 있었다하며 藍色유리구슬(當初는 一三〇個程度)에 실을 꿰어 勾玉 한 개를 中心垂部에 달았고 直徑 一·七cm 程度의 金製細環 二個를 적당한 間隔으로 끼워서 一連의 목걸이를 이루고 있었다 한다. 그러나 分散되어 다시 收拾된 구슬의 數는 一〇三個이며 每個 直徑 〇·八cm 內外로서 한 가운데 실구멍이 나 있으나 連珠絲와 구슬 約 三〇個는 끝내 收拾이 안 되었고 復元된 頸飾의 길이는 六五cm 이다.

② 鐵製利器 一點

平面은 下雙部가 兩翼으로 벌어진 長方梯形的 鐵製 斧頭로 推定되는 데 若干 缺損이 된 上頭部에는 橢圓形 柄孔이 約 八cm 의 길이로 나 있고 全面에 두꺼운 黃褐色의 鐵鏽가 끼어 表面의 手法이 分明치 않으나 柄孔部 表面 上下 두 군데에는 斧柯를 固定시킨 듯 한 釘孔의 痕跡이 있다. 斧頭의 길이 一三·五cm 下邊(雙部) 六·七cm 上頭部 寬이 (柄孔의 口徑 五·二cm 두께(上頭側面) 三·二cm 이다.

③ 無文土器 五點

그 中 高杯 一點은 높이 一八cm 口徑 一五cm 굽다리의 높이 一二cm 로

靑灰色土器이며 上面 꼭지에 단후形 손잡이가 붙은 三點의 杯蓋와 굽다리가 缺失된 一點의 平杯, 그리고 亦是 낮은 굽다리가 붙은 一點의 小鉢에는 한쪽 옆구리에 弓形의 손잡이가 붙어 있고 各各 燒成度가 높은 硬質의 土器로 案面에는 釉藥을 발랐다.

④ 有文土器 三點

안팎으로 釉가 붙은 杯一點과 釉가 없는 杯蓋等 三點인데 모두 簡略한 櫛齒의 押文을 規則的으로 器面全體에 施文하였는데 이 밖에도 平行文, 斜格文, 印文, 波狀文, 雷文等 各種 櫛齒의 破片을 七, 八種 收拾하였으며 器質은 前記 無文土器와 마찬가지로 燒成度가 높은 硬質이다.

⑤ 鐵片 五點

馬具·裝身具 等에 使用된 듯한 卍字形·十字形等 小鐵片인데 酸化가 甚하다.

이 밖에도 近處에서 大型 土器의 口緣部나 無文圓底壺의 밑바닥 破片 등을 많이 發見하였는데 이 古墳址에서 出土된 副葬品이라 斷定하기는 어렵더라도 學術的인 再調査의 充分한 資料가 될 것이다.

비록 偶然한 發見으로 石室이 破壞되고 遺物의 完全한 收拾은 안되었지만 그 一插遺物이 金石併用期의 駕洛版圖에서 出土된 것이라 推定할 수 있으며 유리製의 裝身具나 鐵製의 利器 그리고 量과 質에 있어 豊富한 것은 못되지만 土器가운데에는 無文과 櫛齒의 文이 뒤섞여 있고 釉藥을 발은 硬質의 土器로서 손잡이가 달린 發達된 器物이 함께 出土되었다는 것은 注目할만한 것으로서 學術的인 意義도 큰 것이라 생각된다.

報 告

新羅五岳調査(吐含山地區 第四次)

今年末로 終結된 新羅五岳調査中 東岳에 對한 第四次調査는 八月上. 中旬에 걸쳐 黃壽永·文明大二人에 의하여 實施되었다. 今次의 主要對

象은 吐含山 東西兩面에 散在되어 있는 小規模의 寺址였는바 먼저 金大城의 捕熊說話와 關聯된 夢成寺 長壽寺 熊壽寺를 비롯하여 「佛國寺古創記」에 보이는 屬庵으로서 白蓮庵 光日堂 雲劍庵 天劍庵 등의 遺址를 確認하였으며 一部 試掘을 통하여 그 初靑年代를 推定코자 하였다. 이 調査를 위하여서는 文獻以外에 古老와 地方民들의 敎示가 큰 도움이 되었다. 上記 寺址 以外에 石窟庵 東南下의 凡谷里部落과 甘山寺址附近一帶에서 計 六處의 建物址(모두 寺址로 推定됨)를 確認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大小建物址 以外에 佛國寺를 中心으로 千佛殿址 光學藏址 洛訶橋 등과 金銅佛이 韓末(甲午 乙未 一八九四, 五年頃)에 一時 寺域 東北方에 埋藏된 事實과 그 場所를 알 수 있었으며 多寶塔 獅子 舍利塔 大雄殿 屋蓋 白磁蓮蓬 등의 搬出事實을 들 수 있었다. 동시에 石窟庵의 辛卯年(一八九二)蔚山趙兵使現夢에 의한 重修事實의 口傳과 甘山寺石佛二軀의 原位置 등에 대한 目擊者의 證言은 모두 貴重한 것이었다. 今次 로써 東岳에 對한 조사는 거의 一段落되었다고 생각된다.

八月六日: 慶州博物館內 獐項里寺址石佛調査↓吐吟山泊

七日: 上凡谷里寺址調査(新羅瓦蒐集)↓불선골寺址調査(新羅瓦蒐集)(權氏案內)

八日: 佛國寺調査↓馬洞塔寺址(夢成寺址)調査 및 法堂建物址試掘

↓新千佛庵寺址調査(康熙四八年銘瓦等 多數의 기와를 蒐集)

九日: 빛골寺址調査↓진티寺址調査試掘(長大石 및 礎石調査)↓長壽寺址調査↓熊壽寺址調査(斷面을 끊어 新羅·高麗·李朝의 各時代瓦 蒐集, 座臺石調査)↓광복堂址確認調査(礎石)

一〇日: 雲劍寺址調査 試掘(礎石, 新羅瓦 蒐集)↓天劍寺址調査試掘(礎石, 新羅瓦 蒐集)↓昔脫解祠堂址再調査(이날 午後 吐含頂上에서 軍人一名 落雷 死亡)

十一日: 獐項塔亭寺址調査(金堂址實測, 拓本, 계곡에 아직도 殘留 또는 埋沒된 石塔材 調査 수막새片蒐集)

一二日: 甘山寺調査(景福宮에 移置된 彌勒, 阿彌陀佛像原位置 確認, 伽陵頻迦 및 蓮花紋 막새瓦 蒐集)↓花岩寺址調査↓배암寺